

numbers 제 78호



주요 내용 :

- 인사말
- 2020년 넘버즈 Top 8

2020. 12. 31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년을 마감하며...

류영모 목사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이사회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

목회데이터는 과학입니다. 우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보는 창문입니다. 그 과학이라는 창문너머 어렵게나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짐작하게 해 줍니다.

목회데이터는 교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울부짖음입니다. 때로는 칭찬과 격려의 소리로, 때로는 책망과 꾸짖음의 소리로 들려옵니다.

목회데이터는 예언입니다. 때로 안개 자욱한 길에서 더듬거리며 방향할 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줍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착륙의 내리막이 경착륙의 가파른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는 따갑기만 하고 교회에 실망하여 떠나는 이들의 발걸음소리는 점점 더 요란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교회를 도울까? 어떻게 목회자들을 격려할까?’ 기도하던 우리는 목회데이터연구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가슴앓이가 하나님의 컴패션(Compassion)이었던가요? 예배의 위기, 전도의 위기, 다음세대의 위기,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시대가 몰아쳐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작은 몸부림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고 절망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목회데이터는 무료로 나누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는 만나는 아닙니다. 한 푼, 두 푼 조금씩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신실한 헌신자들이 있어 나눌 수 있는 선물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아 목회데이터가 한국 교회에 더 많이 나눠지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후원자 그리고 독자 여러분!

2021년에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더 세밀하게 세상을 정탐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향해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정탐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한국 교회는 반드시 뉴노멀을 희망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0, [넘버즈] Top8



이 사진은 지난 12월 5일 미국 타임지가 내놓은 표지이다. 2020이라는 숫자에 붉은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엔 “역대 최악의 해 (THE WORST YEAR EVER)”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2020년 코로나로부터 공격당한 인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올해는 한국 교회에도 큰 시련의 해였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라는 걸 시도하였고 성도들은 좋든 싫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힘듦이 있었다. 급속하게 전환되는 비대면 문화에 적응하기란 교회의 상당수를 이루고 있는 소형 교회 목회자들에게겐 아직까지 버거운 일이다. 성도들은 온라인 문화를 따라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목회자들은 아직도 온라인이 불편하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넘버즈] 2020년 마지막 호는 올 한해 독자들의 반응이 높았던 콘텐츠 중 기독교, 일반사회, 다음세대, 트렌드 분야로 나누어 8개를 뽑아 정리하였다.

[코로나19와 개신교]

1. 코로나19의 개신교인 영향도
2. 코로나19의 목회자 영향도
3. 비대면 시대, 교회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4. 일반국민의 눈에 비친 개신교
5. 예장통합교단 교세통계 분석

[다음 세대]

6.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일반 사회]

7. 한국인 결혼/출산 인식 변화

[트렌드]

8. 트로트 전성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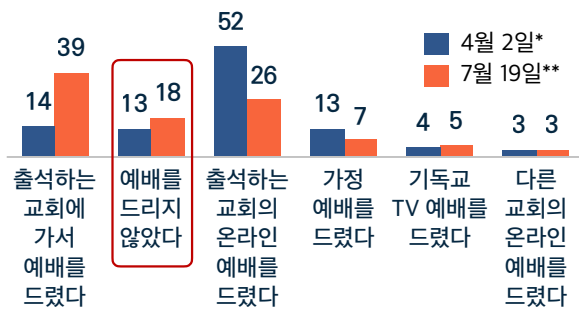
1

코로나19의 개신교인 영향도(제 6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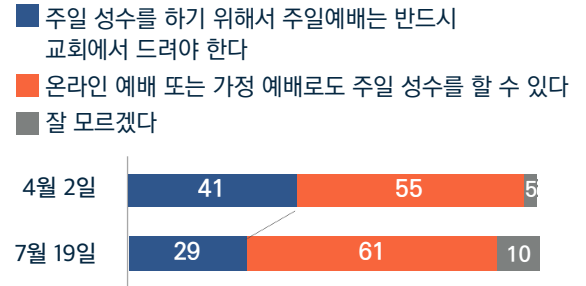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요 사회적 주체 중 하나를 꼽으라면 한국교회를 들 수 있다. 기독교인이 절대 가치로 생각했던 대면 예배가 중단되거나 혹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외의 모임은 거의 전면 중지되었다. 이는 한국 기독교 역사 13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여기에 일부 교회의 방역 일탈로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도 하락을 감수해야 했다.
- 코로나 이전 교회출석자를 대상으로 4월 초와 7월 중순에 동일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 예배든 현장예배든 아예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13%에서 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예배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이 4월 55%에서 7월 61%로 증가하였다. 이런 인식의 흐름 속에 개신교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으로 '온라인'을 압도적인 1위로 꼽았다.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예배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 증가

[그림] 지난 주일예배 드린 형태(교회 출석자, 상위 6위) (%)



[그림]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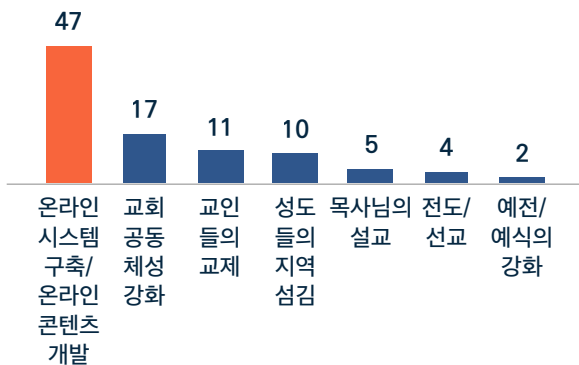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2020.04.14. (전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2.~0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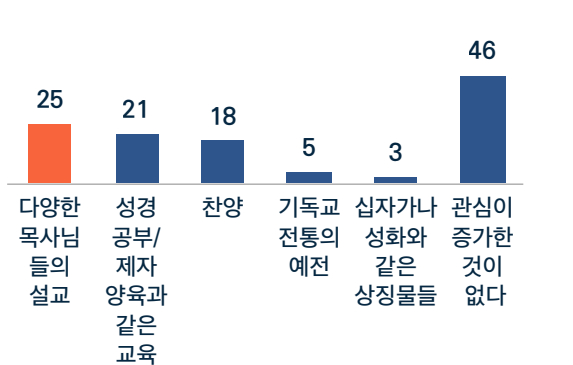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온라인'이 압도적 1위

[그림]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개신교인) (%)



[그림]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신앙생활 관련 관심 사항 (중복 응답, 개신교인) (%)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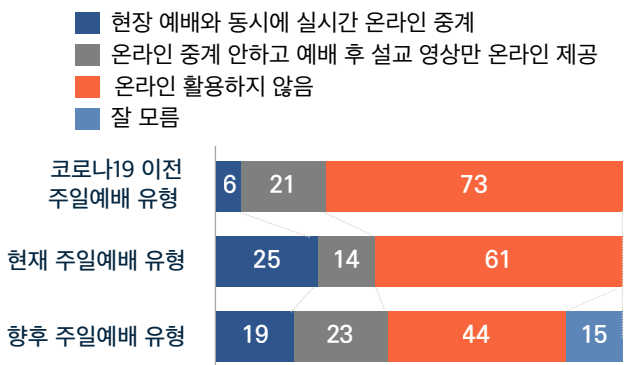
2

코로나19의 목회자 영향도(제 5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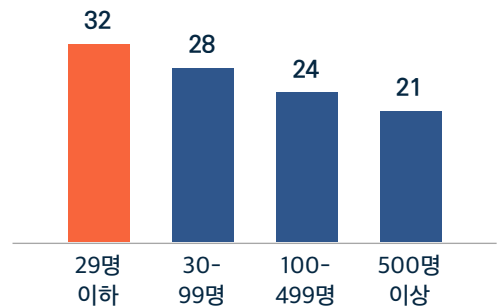
- 지난 6월 예정통합 총회에서 교단 소속 담임목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조사가 처음이어서 의미가 컸다.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이전 주일예배 시 온라인으로 동시 중계를 하는 교회가 6%에 불과했는데, 조사 시점에 아예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 교회가 무려 61%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인력/기술적인 여건이 안 되는 교회가 많다는 반증이다. 코로나 종식 후에도 온라인을 하지 않겠다는 교회가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문화라는 급속한 시대적 흐름과 매칭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 헌금과 관련, 소형 교회가 중대형 교회보다 헌금 감소율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해 소형 교회가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종식 후 “온라인 안 하겠다” 44%

[그림] 주일예배 시 유형(예정통합 교단 담임 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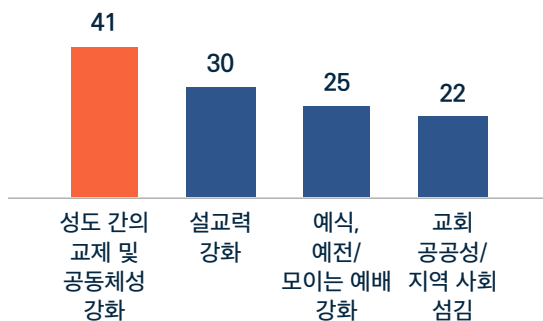
[그림] 헌금 감소율(교회 규모별, 장년 출석 교인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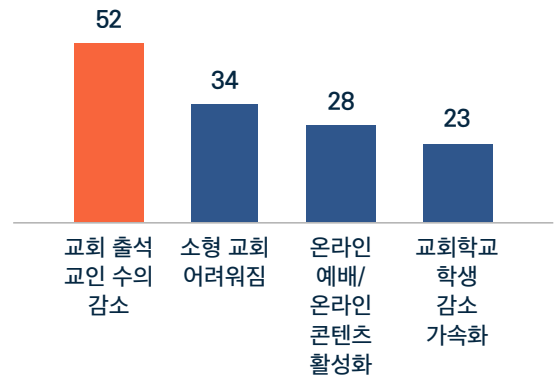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정통합총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조사' 020.06.15.(예정통합 소속 교회 담임 목사, 1135명, 모바일 조사, 2020.05.28~06.01)

● 코로나19 종식 후 목회 중점 사항 1위 “공동체성 강화”

[그림] 코로나19 종식 이후 목회 중점 사항(상위 4위, 중복 응답) (%)



[그림]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한국 교회 변화(상위 4위, 중복 응답) (%)



*자료 출처: 예정통합총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조사' 020.06.15.(예정통합 소속 교회 담임 목사, 1135명, 모바일 조사, 2020.05.28~0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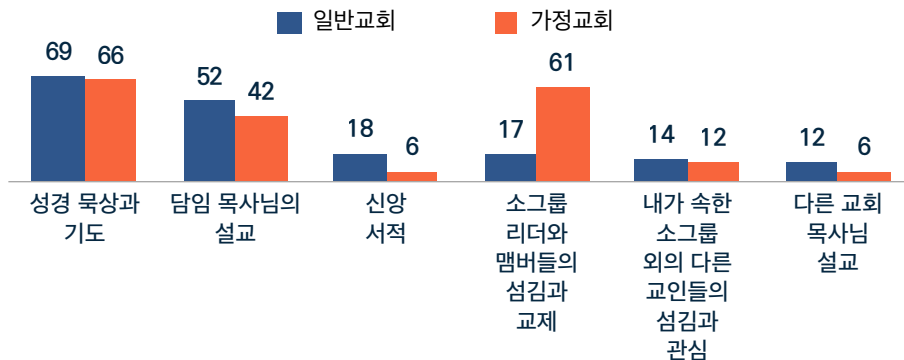
3

비대면 시대, 교회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제 66호)

- 여러 목회자에게서 교회 상황을 듣다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헌금이 줄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특별한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공동체성’이다. 연구진은 일반 교회 성도와 공동체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가정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는지 비교해 보았다.
- 그 결과, 개인 신앙유지에 도움받는 것으로 ‘소그룹 리더와 멤버들의 섬김과 관심’이라는 응답이 일반 교회는 17%, 가정교회는 무려 61%였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소그룹 교제 방식에 대해 일반 교회는 카톡/문자/온라인 교제가 주를 이룬 반면, 가정교회는 1:1(또는 소그룹)로 직접 만나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정교회는 비대면 시대에서도 소그룹 활동이 일반 교회보다 활발했고, 따라서 그들의 신앙생활도 일반 교회 성도보다 더 역동적이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도움 받는 것, 가정교회가 일반 교회 대비 소그룹 멤버들의 섬김과 교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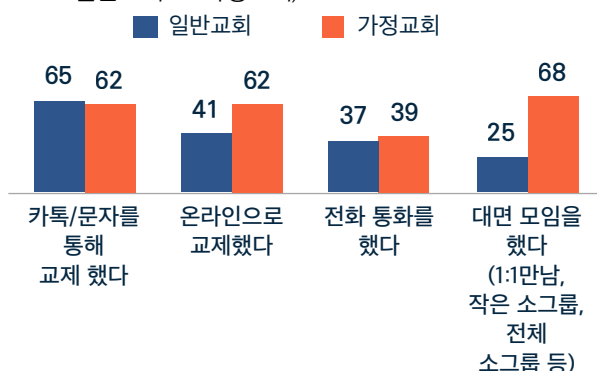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도움을 받는 것(1+2 순위, 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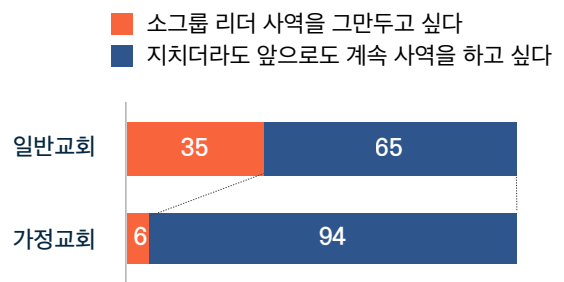
*자료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일반 교인과 가정교회 교인의 신앙 의식 및 신앙생활 비교 조사'(만 20-69세 출석 교인 각 500명씩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8.20-31)

●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그룹 교제 일반 교회 '카톡/문자' 중심, 가정교회 '대면 모임' 중심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그룹 교제 방식(중복 응답, 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그림] 소그룹 리더 사역 계속 의향 (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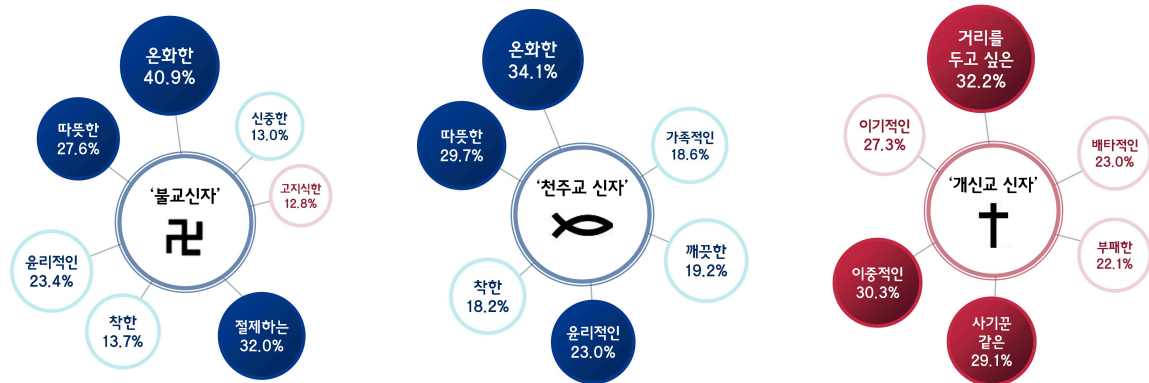
*자료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일반 교인과 가정교회 교인의 신앙 의식 및 신앙생활 비교 조사'(만 20-69세 출석 교인 각 500명씩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8.20-31)

4 일반 국민의 눈에 비친 개신교(제 61호)

-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천지부터 시작해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회의 방역 일탈 등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언론에서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개신교 교회들이 언론의 타겟이 되어 여과없이 그 부정적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 우리 국민들은 불교와 가톨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 반면, 유독 개신교에 대해서만 부정적인데,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등의 이미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회적 봉사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종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이미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그림]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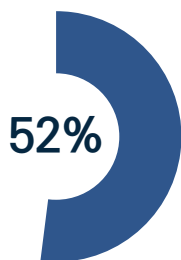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 2020.07.17. (전국 만20~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6.23.~26)
 ** 조사 시점 : 코로나19 확진자가 28~51명 수준으로 발생했던 기간임(참조:<https://livecorona.co.kr/>)

● 국민 2명 중 1명,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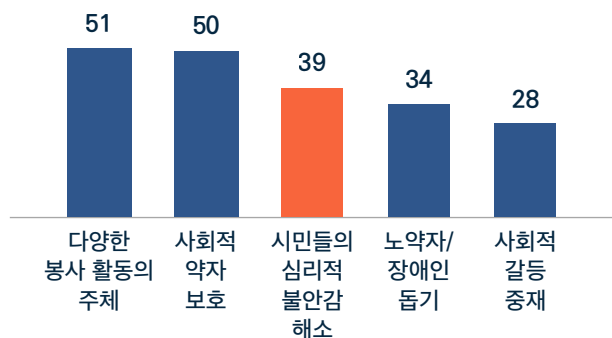
[그림] 종교의 중요성 인식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림] 우리 사회 종교의 역할(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 2020.07.17. (전국 만20~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6.2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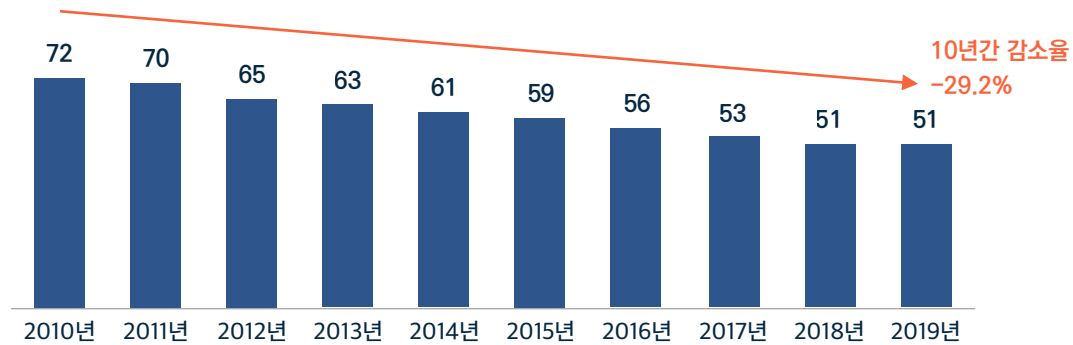
5

예장통합 교단 교세통계 분석(제 67호)

- 1990년대까지 성장기를 구가한 한국교회는 현재 교회(주일)학교, 장년 모두 감소추세에 직면해 있다. 이렇 게 큰 위기 앞에 서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현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다. 따라서 각 교단마다 교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교단 발전과 기독교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예장통합 교단의 의뢰로 교세통계 심층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예장통합측의 양해 를 얻어 그 보고서를 공개하게 되었다. 이 자료에서 보이는 현상은 아마 다른 교단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이며 한국 교회 전체의 현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 교회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 1개 교회당 평균 교인수(중앙값) 51명

[그림] 최근 10년간 1개 교회당 평균(중앙값**) 추이(2010년~2019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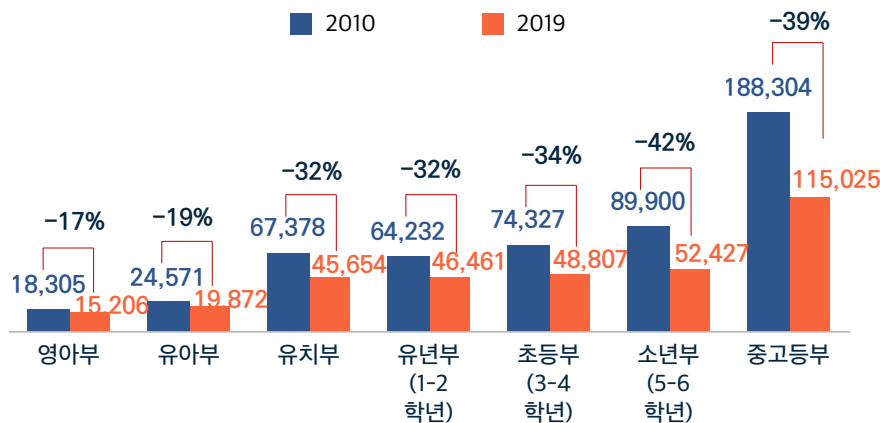


*자료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세통계(2019)

** 중앙값: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교회부터 가장 적은 교회까지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장 중간에 있는 교회의 교인 수를 의미함

● 교회(주일)학교 10년간 평균 35% 감소 → 소년부 감소 폭이 가장 큼

[그림] 최근 10년간 교회(주일)학교 학생 수 증감률 추이(2010년~2019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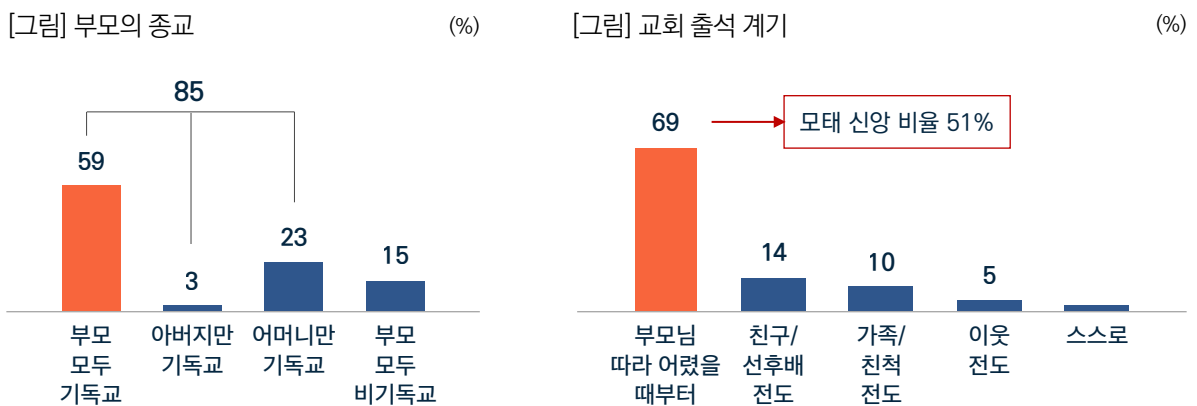
*자료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세통계(2019)

6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제 5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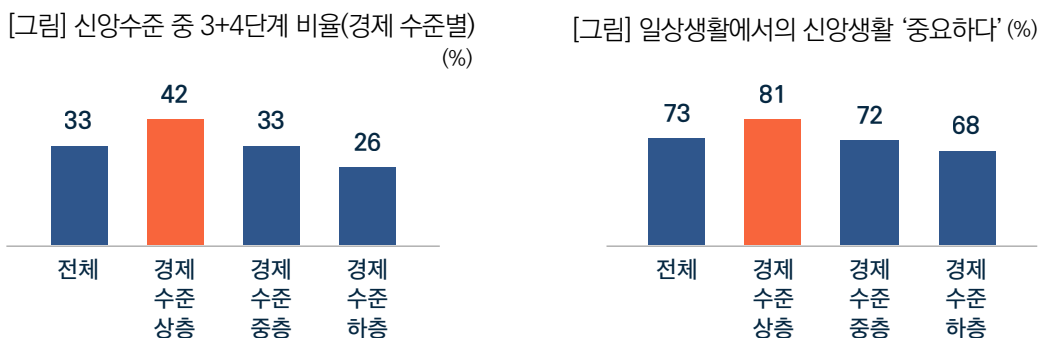
- 한국 교회가 정체 또는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가족종교화’이다.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작년 말에 발표한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교회 출석 중고생의 모태 신앙 비율이 무려 51%나 되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신교인 비율이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도에 의한 새신자 유입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현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도 가족 영향이 절대적이고, 현재 신앙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 역시 어머니가 절대적이다.
- 한 가지 더 발견 사항은 어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 중고생들의 경우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신앙 수준이 높다는 사실이다. 즉 집안이 잘 살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그 자녀의 신앙 수준이 더 높고,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과 행복도의 상관도가 높는데, 다음세대 신앙까지 이 경향성이 연결되고 있다.

● 개신교 중고생 모태 신앙 비율 51%, 부모 개신교인 비율 85%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 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신앙 수준이 높은 경향 뚜렷!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 경제 수준은 학생 가정의 경제 수준을 주관적 평가로 응답 받음

***신앙 단계 : 1단계 : 기독교 입문층(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그리스도 인지층(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그리스도 친밀층(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그리스도 중심층(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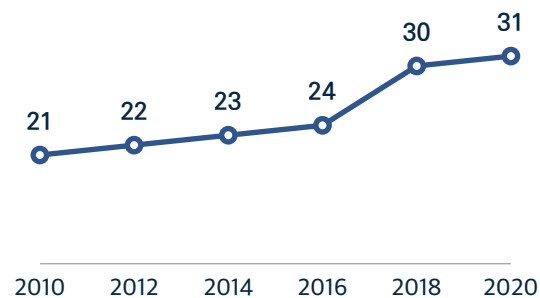
7

한국인의 결혼/출산 인식 변화(제 7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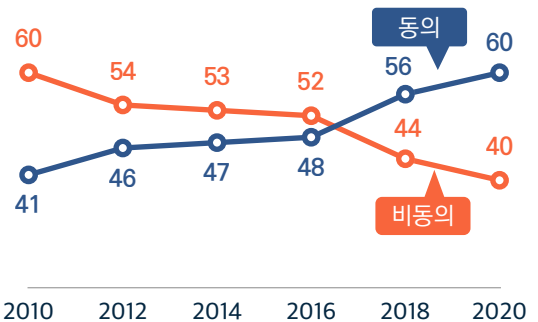
-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혼 출산을 국내에서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비혼 출산이 이슈가 되었고, 이와 관련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국회에서는 입법화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통계청이 '2020 사회조사결과'를 지난 11월에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 10명 중 3명가량(31%)이 비혼 출산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23%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20대 젊은층은 38%까지 찬성률을 보였다. 또 비혼 동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고, 20대 젊은층은 무려 79%나 찬성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재혼 가족, 미혼모/부, 비혼 동거 가족, 입양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 비혼 출산, 국민 10명 중 3명 '찬성한다'

[그림] 비혼 출산 인식 추이(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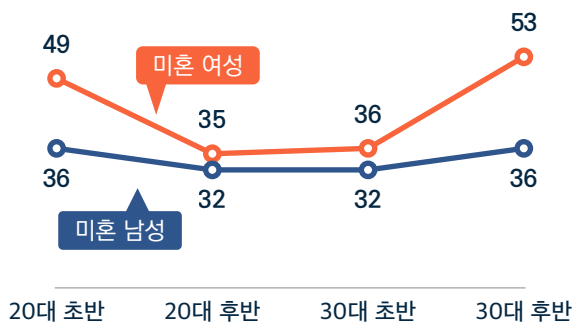
[그림] 비혼 동거 인식 추이(연도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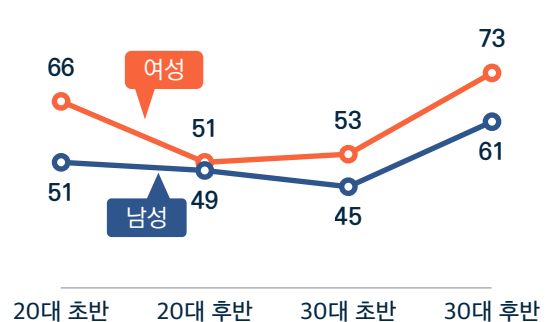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11.18. (전국 18,543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13세 이상 가구원 약 37,750명, 면접 조사/자기 기입식 및 온라인 조사, 2020.05.13.~28)
**각 연도별 사회조사 결과

● 미혼 여성(20-39세), 30대 후반이 되면 2명 중 1명 이상이 결혼 생각 접는다!

[그림] 연령별 '결혼 생각 없다' 비율(미혼 청년) (%)



[그림] '향후 자녀 가질 의향 없다' (20-30대, 기혼자 포함) (%)



*자료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년층의 생애전망 실태조사'(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1), 2019.12. (전국 만20-39세 청년, 6,350명, 온라인 조사,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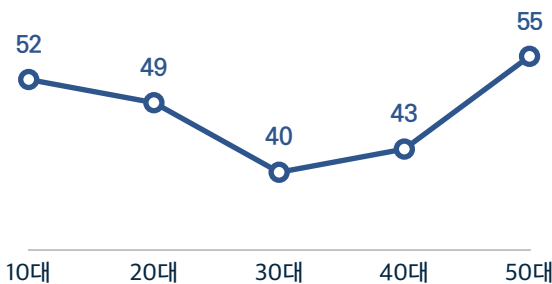
8

트로트 전성시대(제 6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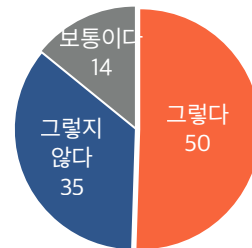
- 트로트가 대유행이다. ‘미스트롯’에서 시작되어 유재석의 ‘놀면 뭐하니?’가 관심을 모은 후 ‘미스터트롯’에서 폭발한 트로트 열풍은 온 나라를 뒤덮었다. 현재 방송 중인 ‘미스트롯2’는 첫회부터 시청률 29.9%를 기록했다. 트로트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TV만 틀면 들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트로트 노래가 많이 나온다.
- 트로트의 유행은 요즘 사회 문화 트렌드인 복고, 즉 ‘레트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고’란 과거에 있었던 것의 반복 혹은 변형이므로, 복고의 특징은 익숙한 것이다.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이 어렵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경기가 닥치면 어느 사회건 복고 현상이 두드러진다. 코로나로 지친 한국사회에 트로트 같은 레트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 조사 결과, 트로트는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연령별로 10~20대 젊은층에서 열광하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이 트로트가 전 연령대에서 즐길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트로트, ‘10~20대’가 열광한다

[그림] 최근 방송된 미스터트롯 본 방송 시청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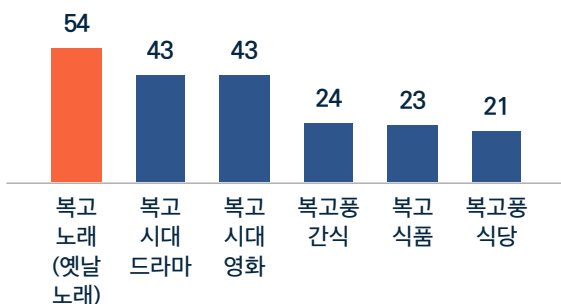
[그림] ‘트로트는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장르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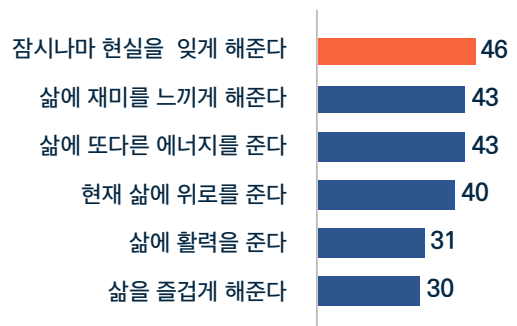
*자료 출처: SM C&C 킬리언 프루, 대한민국의 2020년 트로트 열풍, 2020. 04.21(전국 14~59세 남녀 1,165명, 온/모바일 조사, 2020.03.31)

● 복고 문화 경험, ‘현실을 잊게 해준다’ 46%

[그림] 가장 선호하는 복고 문화/콘텐츠(상위 6개, 중복 응답) (%)



[그림] 복고 문화 경험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상위 6개 /복수 응답) (%)



*자료 출처: 트렌드모니터, ‘복고문화 관련 인식조사’, 2015. 9.30(전국 만19~59세 남녀 2,000명, 온라인 조사, 2015.07.21~2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
로
나
19

[한국 10만 명당 확진자 수, OECD 37개국 중 36위로 낮아](#)

뉴시스_2020.12.21.

[한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겠다 87%, 32개국 평균 71%보다 높아](#)

연합뉴스_2020.12.29.

[한은 "코로나가 올해 혼인·임신 감소에 큰 영향줬을 것"](#)

연합뉴스_2020.12.30.

[코로나 불황에 로또복권 주간 판매액 9년 만에 1000억 돌파](#)

동아일보_2020.12.28.

[대면수업도, 동기도, MT도 없었다... '찬란해야 할 1년'이 사라졌다](#)

한국일보_2020.12.29.

[빅데이터분석, 코로나 사라지면 가장 가고 싶은 일상장소 학교 1위...교회 12위](#)

조선일보_2020.12.26.

[\[휴면 이야기\] 세 아이 두고 의료봉사 갔다 확진... "이승되던 날, 엄마 눈빛 못 잊어"](#)

한국일보_2020.12.28.

사
회
일
반

[암 유병자 200만명...5년 넘는 생존자 10명 중 6명꼴](#)

한겨레신문_2020.12.29.

[우리나라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 부부 267만 원, 개인 165만 원](#)

매일경제_2020.12.29.

['개천에서 용' 안 나온다...저소득층이면서 학력 상위권 100명 중 3명뿐](#)

중앙일보_2020.12.27.

[학부모 45% "방과후돌봄 필요"...10명 중 7명, 초등돌봄교실 선호](#)

연합뉴스_2020.12.29.

[20대 여성 자살률, 이 조용한 학살을 멈추려면](#)

여성신문_2020.12.27.

[대학생 취업 희망 직업 1위 '공무원'...“안정성 중요”](#)

문화일보_2020.12.27.

[한국 '에너지 건전성', OECD 37개국 중 30위...지속가능성도 'C'](#)

경향신문_2020.12.2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
제

[작년 근로자 연봉 평균 3천744만원...역대 연봉자 85만명](#)

연합뉴스_2020.12.29.

[올해 새로 빛낸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연합뉴스_2020.12.07.

[자영업자 10명 중 8명 매출 감소...평균 45.7%로 '반토막'](#)

동아일보_2020.11.10.

[주요기업의 사회공헌\(기부\) 실태](#)

동아일보_2020.12.28.

북
한

[북한, 1인당 한 해 141만원 벌어들여...남한과 소득격차 27배로 벌어져](#)

경향신문_2020.12.28.

["北, 지난달 중국 수출 겨우 263만원...화장품·비누 3품목뿐"](#)

노컷뉴스_2020.12.26.

["北 인권상황 심각" 88%, "외부서 적극 개입해야" 64%](#)

조선일보_2020.12.28.

이슈 큐레이션

[미국은 트럼프를 떠나보내지 아니하였다](#)

한겨레신문_2020.12.29.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현,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제주연동서부교회, 김영훈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1-68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바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을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실업률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중증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현황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대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자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69호-75호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송예슬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ys0118@jicom.co.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